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김 정 애* · 김 용 숙**

이리 동중학교 교사* · 전북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A study on the Body Cathexi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High School Girls

Kim, Jeong-Ai* · Kim, Yong-Sook**

*Teacher, Leelee Dong Middle School**
*Professor. Major in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ody cathexi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the high school girl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physical, psychological, and school related variables.

Data was obtained from 378 high school girls in Jeonju City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March to April, 2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1. Body cathexis of high school girls was relatively low, face and upper body cathexis were higher than other body parts, but lower-body and total body cathexis were low.
2. Body cathexis of high school girls was in exact proportion to their parents' educational level, total household income, and monthly pocket money. And it was higher in case of tall, light, external personality, higher self-esteem, art or physical high school girls, and the vocational high school girls, with good academic records, and popular among friends.
3. High school girls showed highe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such as bath, skin care, hair care, but they did risky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such as drug use, diet, plastic cosmetic a little. The students in case of mother's higher educational level, more monthly income of household, more pocket money, external personalities, lower self-esteem, art or physical high school girls and the vocational high school girls, with good academic records, popular among friends showed highe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 서 론

청소년기는 성장 발달 단계상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자아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의 원인은 청소년기가 집단소속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이동의 과도기이기 때문이며, 이들은 소속감의 상실로 인하여 부모나 성인사회에서 진장을 경험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인 안정감을 갈망하게 된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은 불안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또래집단을 어느 시기보다 중요시하여 친구집단에 소속되고자 노력하게 되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진다(박영남 외, 1993). 즉, 타인을 많이 의식하여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신체의 건강여부, 결함의 유무와 신체적 우열에 의하여 지적, 정서적, 사회적 활동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신체 및 외모에 대한 만족 여부는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이에 만족할 때는 더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행동과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심정은 · 고애란, 1997; 김미숙 · 김경희, 2000).

자기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은 자기개념에 대해 안정감을 갖게 되어 확실한 자아개념을 지니게 된다. 특히,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사회활동이 많아지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외모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추구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마른체형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박우미, 1993). 비만이 아닌 정상체중인 사람들조차도 무모하게 체중조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임숙자, 1993). 이와 같이 왜곡된 외모 관심은 자신의 체형이나 체중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신체 이미지 및 체형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부적절한 섭취행동 및 무모한 체중조절로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김인식, 1981; 고애란 · 김양진, 1996; 심정은 · 고애란, 1997). 특히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와 같은 영상 매체의 발달로 인기연예인을 모방하려는 심리가 강해 섭취 제한이나 에어로빅, 헬스 등을 통해 이상형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신체부위 중에서도 자신의 체형을 가장 많이 의식하며(심정은 · 고애란, 1997),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만족도가 낮으면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고 스스로를 과체중이라는 그릇된 신체 인식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김양진 · 강혜원, 1992; 조선진, 1997). 또한 이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외모나 의복으로써 사회적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화장, 의복, 액세서리 등으로 불안감을 보완하려는 경향이 높다(구자명 · 이명희, 1994; 심정은 · 고애란, 1997).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은 인정받으려는 심리적 의존성이 강하여 만족스러운 신체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외모관리행동의 일부 행동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여고생이 어떠한 외모관리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가장 관심이 높은 청소년기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신체 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아 신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적절한 외모관리행동을 하도록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육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문헌 고찰

1. 청소년기의 특성

청소년기는 시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호르몬의 분비와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 정도부터 시작하여 추상적 사고능력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18-20세 까지 를 지칭한다. 중학교 시기를 청소년 전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기를 청소년 후기의 2단계로 구분하기도 하며(윤진, 1993),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연령에 준하여 청소년 전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후기의 3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민영순, 1979). 본 연구 대상자는 고등학생들로 후자의 정의에 속하는 청소년 중기에 해당된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아정체감 혼란을 겪는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측면에서는 급격한 성장을 거쳐 성인의 수준에 달하며, 생리적인 여러 기능이 완성되어 에너지가 왕성해진다. 특히 여자의 경우 변화

하는 신체에 민감해지고, 의상이나 몸치장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Hurlock, 1976). 또한 심리적 측면에서는 자아 감정이 높아지며, 자존심, 자기주장, 독립성이 강하여진다. 부모에의 의존성에서 탈피하여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정인석, 1979). 사회적 측면에서는 청소년은 부모 및 성인의 권위에서 탈피하기를 원하지만 심리상태는 동요가 심하여 흥분하기 쉽고, 정서가 불안정하므로 인간의 기본적 사회욕구의 하나인 불안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시기이다(김병미, 1975).

청소년기는 자아상 확립의 중요한 시기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정체감확립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성격적인 부적응과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부적응을 겪게 될 수도 있다(Schertzer 등, 1974). 만일 이 시기에 그가 속하는 사회에서 장차 그가 점유한 자리나 장래의 가능성을 전망하지 못한다면 정체감 혼미를 경험하게 되며, 그 혼미 속에서 정착할 바를 찾지 못해 야기되는 무실체감을 벗어나기 위해 부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기도 한다(Marier, 1965).

청소년들은 추상적인 용어보다 구체적인 용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직접 느낄 수 있는 의복이나 외모에 관심이 매우 크다. 청소년들은 사회의 기대와 역할에 적응하고 집단에 소속되길 원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보통 동료집단에 동조하게 되며 집단과 다르게 인정되는 것을 피하려며, 동조 수단 중 의복이나 외모가 사용된다. 청소년기는 내향 또는 외향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는 시기이다. 내향 또는 외향적 성격이란 한 사람의 근본적 사고 및 행동의 방향이 자신의 내부로 향했는가 또는 외부로 향했는가를 의미한다. 내향적 성격과 외향적 성격의 근본적 차이는 주관성과 객관성에 있다. 즉, 내향적인 사람은 주관적 세계가 중요하므로 항상 원칙에 따라 움직여 융통성이 없으나 섬세한 감정을 갖는다. 그러나 외향적인 사람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실용성과 필요에 의하여 제어되며 융통성이 있으나 감정은 섬세하지 않다(강혜원, 1995). 또한 내향적인 사람은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고 비사교적이며, 결단력이 부족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남에게 흥잡히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외향적인 사람은 주위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매우 사교적이며 만사에 낙관적이고 정열적이다(박효인, 2000).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자기존중감이 발달하게 된다. 자기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 및 인정을 받고자 하며 타인보다 우월하길 원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자기존중감은 자아개념보다 한정적이며 일관성있는 개념으로 그 의미에 있어서 평가적, 감정적 요소가 내포되어 양적 측정이 가능하다(김순구·박정순, 1990).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자신감이나 자기존중감이 증가하여 신체만족도가 자기존중감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자기존중감은 가장 큰 위협을 많이 받으나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기개념이 분명해지고 현실적으로 되므로 큰 문제를 못 느끼게 된다(Stuart 등, 1983).

또한 자기존중감은 자기와 타인에서부터 유래된다. 즉,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내재화하여 형성되므로 아동기에는 부모의 평가를 수용하면서부터 자기존중감이 발달한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환경에 대한 탐구, 독립에 대한 욕구, 모에 대한 불일치를 겪으면서 자기존중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자기존중감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성공 또는 실패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이 타인과 연관시켜 자신을 평가할 때 사회적 비교가 발생하며, 그 결과로써 자기존중감의 감정이 증가되거나 감소된다(Mores & Gergen, 1970).

이상과 같이 청소년기는 신체적 급성장을 겪으면서 심리적 변화를 많이 겪는 시기이다. 이들은 자아가 확립되지 않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사회적 역할이 중대되기 때문에 외모나 의복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2.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란 Secord & Jourard(1953)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이다. Richard 등(1971)은 신체만족도는 신체 전체의 기능과 신체 기관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측정한 것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Horn(1975)은 신체만족도란 신체의 전체나 각 부분에 대한 개인의 만족 또는 불만족의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Cash 등(1990)은 신체만족도는 신체이미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나 전체의 신체 그 자체보다 오히려 다양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의 정

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애란과 김양진(1996)은 신체만족도를 신체의 전체나 각 부분의 생김새와 기능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신체상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Horn, 1975). 신체상은 사람이 신체에 대해 갖는 감정이나 태도의 총칭이며(Kaiser, 1985), 신체만족도의 반대 개념인 신체불만족이란 자신이 지각하는 현재의 신체와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신체간의 차이로 이상적인 체형이 자신이 지각하는 현재의 체형이 말랐거나 뚱뚱할수록 둘간의 차이는 크다. 따라서 신체에 대한 불만족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Second & Jourard, 1953).

이상과 같이 신체만족도는 신체전체 또는 신체의 여러 부위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만족 또는 불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신체상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Richard 등(1971)은 신체 각 부위에 대한 감정은 자아에 대한 감정과 일치하며 신체가 고통받거나 불안한 상황일 때 신체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20-6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Mclean(1978)의 연구에서는 가장 짧은 집단의 신체적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짧은층은 이상적 체형을 목표로 하니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불만감이 크기 때문으로 보았다.

Horn & Gurel(1981)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관심이 크고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기의 신체만족도는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구자명과 이명희(1994)의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신체만족도가 남학생보다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으므로 여학생은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기대가 높아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남학생에 비해 떨어진 것이 여학생의 신체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게 된 원인이라고 하였다. 고애란과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 이상적인 신체상과 인지된 신체상 사이의 차이가 적을수록 정서적으로 자신에게 만족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하반신과 전신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불만족이 높았으며, 중학생과 대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가장 신체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김양진과 강혜원(1992)의 연구에서는 조성아(1991)의 연구 결과와 달리 여고생의 신체만족도가 다소 낮게, 특히 하체에 대한 불만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의 거주지 차이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총월 수입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학교 형태별 신체만족도는 여자만 다니는 학교의 여고생들이 남녀 공학의 여고생들보다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녀 공학의 여고생들이 좀 더 자신들의 신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체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여고생의 신체만족도가 여대생의 신체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아, 1991). 이는 중학생과 대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가장 신체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난 고애란과 김양진(1996)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신체만족도의 결과가 연령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도시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읍·면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보다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Ryan(1966)의 연구에서 도시환경에서 자란 것이 외모에 대한 자기 자신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명희(1982)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의복은 신체적 자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특히 신체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의복사용의 하위변인인 심미성과 주위집중성을 중요시한다고 했다.

신체만족도는 신체의 기능과 외모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므로 의복사용 안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감에 따라 자신감이 생기거나 반대로 위축감이 생기고, 이상적인 신체상과 자신의 외모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을 의복을 통해 극복하려 하므로,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였다(구자명 등, 1994). 즉 신체와 의복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이며(Sontag & Schlater, 1982).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김미영, 1983).

Horn(1975)은 신체만족도는 인종과 성에서 차이가 나며 의복과 관련된 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여고생들 중 신체에 만족하는 학생이 의복

에 관심이 많으며 의복을 이성의 주의를 끄는데 사용하고, 또한 신체만족도는 자아수용성과 자아정체감에 관계가 있었으며 신체적 자아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정신적 안정성도 높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신체만족도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적극 참여하는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신체가 불안한 상황일 때 신체만족도가 낮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신체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하반신과 전신에 대한 신체만족도가 낮았다.

3. 외모관리행동

외모란 우리가 타인을 치각할 때 단서로 사용하는 신체적 특성으로 체격, 얼굴모습, 의복, 화장, 안경과 같은 액세서리, 건강상태, 체취 등을 포함한다 (Freedman, et.al, 1983; 황인정, 1993). 외모는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의 외모는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Horn(1975)은 외모에 대한 자기 개념이 자존심이나 굴욕과 같은 감정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외모가 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신체 매력이나 신체 태도를 갖게 되어 체중조절행동이나 운동, 화장, 신체변화, 의복 행동 등으로 외모를 관리하게 된다.

외모관리행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의 기대하는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도구, 즉,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도구를 "정체성 도구"라 한다(Goffman, 1965)

Rudd와 Lennon(2000)은 외모관리행동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위험한 외모관리행동으로 섭취행동과 약물남용, 그리고 기타 등 3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섭취행동과 기타 외모관리행동 2가지로 조정되어 자료가 분석되었다. 섭취행동은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무절제한 섭취로서 폭식행동과 거식증을 의미한다. 기타 외모관리행동에는 가슴확대나 축소, 체중감량을 위하여 설사제나 이뇨제와 같은 약물사용, 과격한 운동, 매질, 흡연, 위험한 미용성형수술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사회적 비교, 의복사용, 전강식, 화장, 하루에 여러 차례 몸무게 채기 등도 포함되었다.

사람들은 사회적 비교를 통하여 준거집단 내의 외모의 기준을 관찰하고 다이어트, 화장품 사용 등의 외모관리행동과 연합시키고, 이를 매력성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그로 인한 자기존중감 향상과 사회적 이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Bloch & Richins, 1992). 특히 현대사회의 매스미디어 확산과 그 영향으로 미디어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이루어지는 비교를 제공한다. 즉 매스미디어나 준거집단을 통한 외모와 신체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되고, 이는 자기존중감과 관련이 되며, 외모향상 및 자기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체중조절행동이나 의복행동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Rudd & Lennon, 2000).

여성의 경우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박우미, 1993), 때문에 정상 체형인 사람들도 체중 조절을 위하여 섭취 조절을 하며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체중조절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정근백 외, 1995).

외모 만족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으며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마른 체형을 원한다(정재은·이순원, 1993).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기 여학생들이 급속도로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체중이 증가되고 여기에 관심을 지나치게 두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신이 이상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외모에 부정적으로 지각하면서 거식증이나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Higgins, et.al, 1991; 이인자 외, 2001).

청소년기 여학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체중 조절행동을 많이 하며 자신의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기위주의 의복착용, 심리적 의존성, 유니섹스 의복 착용 등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고애란·심정은, 1997). 특히 얼굴이 매력적일수록 품위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개성적이며 창의적으로 지각되므로 매력적인 얼굴은 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성에 후광효과를 발휘하였다(이선경, 1993). 또한 얼굴은 사회적인 인상을 형성하는데 착용한 의복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인 인상을 주는 얼굴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인상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문영보, 1991).

과거부터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은 하나의 규범이 되어가고 있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문화적 관념을 내면화하여 끊임없이 이를 추구한다. 최

근들어 여성의 아름다움은 인위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이영주·임숙자, 2001). 구체적으로 시대와 문화의 변천으로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금기시 해오던 사고와 미에 대한 관념이 변화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미용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이경희, 1991).

이상과 같이 외모관리 행동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모를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외모를 관리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말한다.

김미영(1983)의 연구에서는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외모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첫 번째가 신체만족도이었고, 그 다음은 의복 만족도, 학교별, 가정의 월수입 순이었다. Freedman (1984)은 신체이미지, 극단적인 섭취 조절, 운동, 미용, 성형수술 등을 포함하는 성인 여성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문현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미디어와 성역할의 변화가 신체적 매력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매스미디어나 준거집단을 통한 외모와 신체에 대한 비교는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되며 외모향상 및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체중조절행동이나 의복사용으로 나타난다(심정은, 1996).

이경희(1991)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용성형수술 대상자들은 질병, 기형, 외상 등의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를 갖지 않으나 신체 외모에 대해 불만과 자신의 신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신체 상에 대한 불만은 자신에 대한 불만과 연관되어 자기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숙 등 (1999)은 현대의 대다수의 여성들이 피부관리, 기능성 속옷의 착용 등 신체를 변형시키지 않고 외모를 가꾸는 외모관리행동을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염색, 시력교정수술, 성형수술 등도 다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복은 제 2의 피부로써 신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다양한 옷차림을 통해 좀 더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위축된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또한 아름다운 의복은 자신의 매력을 돋보이게 해주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높여 준다고 하였다.

박병윤(1994)은 서울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섭취조절 행동 실태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체중 증가를 염려하여 섭취 후 부담을 느끼고 칼로리를 의식하게 되어 체중조절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원한다고 하였다. 박혜순(1996)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이상적 자아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체중조절 행동을 수행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57.4%가 섭취 조절을 통한 체중조절 행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고 하였다.

송경자(199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자기존중감이 의복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지닌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행에 관심이 많았으며 과시적인 의복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충 실지수에 따른 의복사용에서는 비만한 집단이 유행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복에 심리적으로 덜 의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의복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의 좀 더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게 되어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을 갖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회규범처럼 되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외모관리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날씬한 체형을 이상형으로 추구하는 여성들이 증가하여 여러 형태의 체중조절 행동이 나타나고 위험한 섭취 조절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또한 미용성형수술까지도 해서 외모관리를 하는 여성들도 증가추세에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1. 여고생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학교생활 특성과 신체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 본다.

2. 여고생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학교생활 특성과 외모관리행동 사이의 관계를 알아 본다.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전주시내에 위치한 인문계, 실업계,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여학생이었다. 인문계 고등학교 중 남녀공학교 2개교, 여학교 2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중 남녀공학교 2개교, 여학교 2개교, 예·체능계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인 학교 2개교를 무작위로 편의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예비조사를 2001년 2월 중순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설문지 500부를 여고생들에게 배부하여 같은 기간 내에 47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470부 가운데 불완전하게 응답된 것이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92부를 제외한 총 37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신체만족도

Secord & Jourard(1953)가 개발한 신체만족도 측정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한 조성아(199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46개 문항에서 신체기능을 제외하고 신체 외모에 관한 23개 문항을 선택하여 만족도를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얼굴, 상반신, 하반신, 전신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고애란·김양진, 1996), 그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1〉 신체만족도의 하위 부위

하위 부위	세부 내용
얼굴부위	얼굴, 얼굴색, 눈, 코, 입, 턱, 머릿결, 피부
상반신	목, 어깨, 가슴, 등, 팔, 손
하반신	허리, 배, 엉덩이, 다리, 발목
전신	키, 몸무게, 체형, 자세

2) 외모관리행동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동들에 대한 질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형

연구(구자명·이명희, 1994; 조선진, 1997; Rudd & Lennon, 2000)에서 사용된 문항과 연구자가 2001년 2월 중순에 전주시내에 위치한 여고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예비조사에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을 자유기술식으로 서술하도록 한 후 여기에서 서술된 문항중 선택하여 구성하였으며 총 31문항이었다. 이들 문항은 섭취 조절에 관한 4문항, 운동에 관한 2문항, 약물 사용에 관한 2문항, 피부 손질에 관한 4문항, 신체 변화에 관한 5문항, 의복 행동에 관한 7문항, 머리 손질에 관한 4문항, 목욕에 관한 3문항으로 8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그 명칭과 문항 내용은 〈표 2〉와 같다. 질문의 형식은 5점 Likert형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인구통계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학교 생활 특성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총월수입, 한달 용돈 등 4문항으로 단순선택형이었다. 신체적 특성으로 체중(kg)과 키(m)의 2문항으로 자유기술하도록 하였고,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체질량지수를 구하여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체질량지수가 19미만이면 저체중, 19 이상 - 25 미만이면 정상체중, 25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분류하였다(조선진, 1997). 심리적 특성으로 내향 또는 외향적 성격에 관한 1문항과 자기존중감에 대한 1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였는데, 자기존중감은 Rosenberg(1966)가 개발한 도구로 이경희(1991)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격의 외향성 또는 자기존중감이 높았다. 학교생활 특성으로 학교 성적과 학급내 인기도에 관한 2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였고, 학교 계열과 남녀공학 여부에 관한 2문항은 단순선택형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ersonal Comput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차이 검증

〈표 2〉 외모관리행동 문항의 구성과 하위영역 명칭(alpha 신뢰도)

문 항	하위영역 명칭
체중을 줄이기 위해 음식을 적게 먹는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거른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저칼로리 식품만 골라 먹는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식품이라도 살이 찌는 식품은 안 먹는다.	섭취 조절 (Cronbach's alpha = .72)
날씬한 몸매를 위해 헬스클럽에 다닌다. 조깅이나 윗몸일으키기 등의 운동을 한다.	운동 (Cronbach's alpha = .68)
특정 약(이뇨제, 설사제, 살빼는 약)을 복용한다. 나는 살을 뺄 때 위해 흡연을 한다.	약물 사용 (Cronbach's alpha = .57)
피부관리를 위해 매일 기초화장(스킨, 로션)을 한다. 특별한 날에는 색조화장(파운데이션, 립스틱, 눈화장)을 한다. 피부 맛사지를 자주 한다. 여드름 관리를 위하여 피부미용실이나 피부과에 다닌다.	피부 손질 (Cronbach's alpha = .55)
안경·대신 렌즈를 끼는다. 눈썹을 뽑아 정리한다. 귀고리를 하고 다니기 위해 귀에 구멍을 뚫는다. 치아교정을 받는다.	신체변화 (Cronbach's alpha = .63)
좀 불편하더라도 몸에 꼭 끼는 옷을 입는다. 옷을 고를 때 날씬해 보이는 옷을 고른다. 몸매를 가꾸기 위해 체형 보정용 속옷(브래지어, 코르셋)을 꼭 입고 다닌다. 날씬한 허리를 위해 허리를 꼭 줄라매는 옷차림을 한다. 연예인의 옷차림을 모방한다. 겨울에도 다리를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 스타킹을 신지 않고 다닌다. 키높이 신발이나 뒷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다.	의복 사용 (Cronbach's alpha = .60)
머리를 염색한다. 머리를 단정하게 보이려고 스트레이트 파마 또는 코팅 파마를 한다. 항상 머리를 드라이하고 다닌다. 머리에 무스나 헤어젤을 바른다.	머리 손질 (Cronbach's alpha = .55)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 자주 간다. 수영장에 다닌다. 샤워를 자주 한다.	목욕 (Cronbach's alpha = .61)

을 위해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5.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고생들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모든 여고생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문헌조사와 여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예비조사 결과를 통합해서 작성된 것으로 표준화된 문항이 아니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특성

여고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인구통계적 특성 중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표 3〉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변인	항 목	명	%
인구통계적	아버지의 학력	대학교 이상졸업	132
		고등학교 졸업	176
		중졸 이하 졸업	68
	어머니의 학력	대학교 이상졸업	68
		고등학교 졸업	212
		중졸 이하 졸업	96
가정의 총월수입	100만원 미만	71	18.83
	100만원-200만원미만	152	40.32
	200만원-300만원미만	91	24.14
	300만원-400만원미만	39	10.34
	400만원	24	6.37
	3만원 미만	162	42.97
	3만원-6만원	146	38.73
	6만원-9만원	37	20.09
	9만원-12만원	20	10.63
	12만원 이상	12	6.00
신체적	신장	160cm 미만	121
		160cm 이상 -165cm 미만	150
		165cm 이상	107
	체중	50kg 미만	143
		50kg 이상 - 50kg 미만	132
		55kg 이상	103
	체질량지수	저체중	110
		정상	261
		과체중	6
심리적	성격	매우 내향적이다	5
		내향적이다	63
		보통이다	137
		외향적이다	134
		매우 외향적이다	37
	자기존중감	매우 낮다	2
		낮다	53
		보통이다	246
		높다	75
		매우 높다	2
학교생활	학교 계열	인문계	193
		실업계	121
		예·체능계	62
	남녀공학여부	남녀공학고등학교	176
		여자고등학교	201
	성적	상위 0%-20%	62
		상위 21%-40%	81
		상위 40%-60%	140
		상위 60%-80%	71
		상위 80%-100%	23
인기도	인기도	매우 인기없다	7
		인기없다	22
		보통이다	268
		인기있다	63
		매우 인기있다	17

인 경우가 제일 많았다. 가정의 총 월수입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40.32%로 제일 많았으며, 자료 조사는 5단계로 분류되었으나 자료 분석시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을 300만원 이상으로 통합하여 4단계로 조정하였다. 여고생의 한달 용돈은 3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3만원에서 6만원, 6만원에서 9만원인 경우 순으로 많았다.

신체적 특성 중 신장은 160cm에서 165cm인 여고생이 39.7%로 제일 많았고, 체중은 50kg 미만이 38.4%로 제일 많았다. 체질량지수에 따라 저체중으로 분류된 경우가 29.2%, 정상체중으로 분류된 경우가 69.23%, 과체중으로 분류된 경우가 1.60%이었다. 정상 체중으로 분류된 학생이 약 70%, 저체중으로 분류된 학생이 약 30% 가까이 되었으나 과체중으로 분류된 학생 비율이 아주 작아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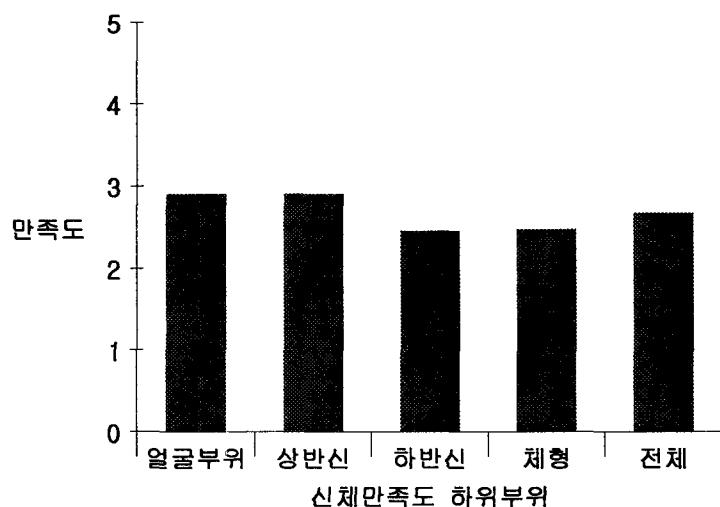
심리적 특성 중 성격은 보통인 경우가 36.34%가 제일 많았고, 외향적인 경우는 35.54%, 매우 외향적인 경우는 9.81%였다. 자료 조사는 5단계로 분류되었으나 자료 분석 시에는 3단계로 조정하였다.

자기존중감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4.3%로 제일 많았고,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20.4%였으나, 매우 높다 또는 매우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거의 없어 자료분석시에는 3단계로 조정하였다.

학교 생활 특성 중 학교계열은 인문계가 51.20%, 실업계가 32.10%, 예·체능계가 24.96%였다. 남녀 공학 여부는 남녀 공학고등학교의 학성이 46.68%, 여자고등학교의 학생이 53.32%로 고르게 표집되었다. 학교성적은 최상위권인 경우가 16.45%, 중상위권인 경우가 21.49%, 중위권인 경우가 37.14%, 중하위권인 경우가 18.83%, 최하위권인 경우가 6.10%였다. 학급내 인기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1.09%로 제일 많았고, 인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6.71%였으나, 매우 인기가 있다 또는 매우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자료 조사는 5단계로 이루어졌으나 자료 분석시에는 3단계로 조정하였다.

2.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그림 1〉은 여고생의 신체만족도 하위영역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고생의 신체만족도 전체는 2.68로 대체로 불만족하는 편이었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상반신만족도와 얼굴만족도는 각각 2.90으로 높았고, 하반신만족도와 전신만족도는 각각 2.45와 2.47로 낮았다. 낮은 신체만족도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용모에 대해 불만족하여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김인식(1981)의 이론으로 연결되며, 특히 청소년기 여학생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그림 1〉 신체만족도의 하위부위 별 평균값

〈표 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인구통계적 특성	신체만족도	하위부위				전체
		얼굴부위	상반신	하반신	전신	
아버지의 학력	대학교이상졸업	3.05(A)	2.98(A)	2.58(A)	2.58(A)	2.80(A)
	고등학교 졸업	2.85(B)	2.89(BA)	2.45(A)	2.46(BA)	2.66(A)
	중졸 이하 졸업	2.73(B)	2.76(B)	2.22(B)	2.29(B)	2.50(B)
	F	8.77***	3.91*	5.62**	4.36*	8.06***
어머니의 학력	대학교이상졸업	3.13(A)	2.97	2.56(A)	2.53	2.78(A)
	고등학교 졸업	2.89(B)	2.92	2.50(A)	2.50	2.70(BA)
	중졸 이하 졸업	2.81(B)	2.80	2.29(B)	2.36	2.56(B)
	F	4.46*	2.38	3.63*	1.70	4.04*
가정의 총 월수입	100만원 미만	2.78(C)	2.85(B)	2.43(B)	2.38	2.61(B)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2.83(CB)	2.89(B)	2.42(B)	2.50	2.66(B)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2.95(BA)	2.90(BA)	2.39(B)	2.42	2.66(B)
	300만원 이상	3.12(A)	2.93(A)	2.51(A)	2.74	2.87(A)
	F	4.02**	.58*	2.89*	2.72	2.87*
한달 용돈	3만원 미만	2.91(B)	2.93	2.40(B)	2.46(B)	2.67(B)
	3만원이상 - 6만원미만	2.83(B)	2.86	2.43(B)	2.41(B)	2.64(B)
	6만원이상 - 9만원미만	3.00(B)	2.90	2.58(B)	2.57(BA)	2.76(B)
	9만원이상 - 12만원미만	3.32(B)	2.81	2.50(B)	2.63(BA)	2.70(B)
	12만원 이상	2.90(A)	3.05	3.00(A)	2.85(A)	3.06(A)
	F	2.60*	.67	2.31*	1.84*	2.14*

* P< .05, ** P< .01, ***P< .001

주) Alphabet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낮다는 Tigard(197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이 결과는 고애란과 김양진(1996)의 얼굴 3.18, 상반신 3.11, 하반신 2.80, 전신 2.72 등의 결과보다 전체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들어 전보다 여고생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체형에의 기대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얼굴이나 상반신에 비해 하반신과 전신에서 신체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허리, 배, 엉덩이, 발목, 키, 몸무게, 체형, 자세 등에 불만감을 가지고 있다는 고애란과 김양진(1996)의 연구 결과, 그리고 여고생의 신체만족도는 다소 낮고, 특히 하체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는 김양

진과 강혜원(199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 상과 같이 여고생의 하반신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이들이 하체가 긴 것 즉 '롱 다리'를 이상 체형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표 4〉는 여고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중 부모의 학력, 가정의 총월수입과 한달 용돈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거나, 가정의 총월수입과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여고생의 신체만족도는 높았다. 이 결과는 조성아(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5〉는 여고생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

〈표 5〉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신체적 특성	신체만족도	하위부위				전체
		얼굴부위	상반신	하반신	전신	
신장	160cm 미만	2.95	2.91	2.50	2.31(B)	2.67(B)
	160cm - 165cm 미만	2.81	2.89	2.35	2.37(B)	2.61(B)
	165cm 이상	2.96	2.89	2.56	2.79(A)	2.81(A)
	F	2.83	.34	2.98	18.52***	4.87**
체중	50kg 미만	2.97	2.99(A)	2.73(A)	2.56	2.81(A)
	50kg 이상 - 55kg 미만	2.85	2.85(B)	2.31(B)	2.43	2.61(B)
	55kg 이상	2.87	2.83(B)	2.24(B)	2.40	2.58(B)
	F	1.75	3.73*	19.65***	2.05	8.16***
체질량 지수	저체중	2.93	2.97	2.81	2.71	2.86
	정상	2.89	2.87	2.31	2.38	2.62
	F	1.26	1.68	21.12***	11.67***	10.17***

* P< .05, ** P< .01, ***P< .001

주) Alphabet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여고생의 신장에 따른 신체만족도는 하위부위에서 전신만족도와 전체 신체만족도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키가 큰 여고생의 경우 하위부위에서 전신만족도와 전체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여고생의 체중에 따른 신체만족도는 하위부위에서 상반신 만족도와 하반신 만족도, 그리고 전체 신체만족도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체중이 적은 여고생의 경우 상반신 만족도와 하반신 만족도, 그리고 전체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신장보다 체중이 신체만족도에 더 영향이 큰 특성이었다. 체질량지수는 신체만족도 하위부위 중 하반신만족도와 전신만족도, 그리고

전체 신체만족도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체질량지수에서 볼 때 저체중으로 분류된 여고생의 신체만족도가 정상으로 분류된 여고생보다 더 높았다. 저체중으로 분류된 여고생들의 하반신 만족도와 전신만족도, 전체 신체만족도가 정상 체중의 여고생보다 더 높다는 것은 이들이 지나치게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 체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정재은·이순원, 1993; 박우미, 1993)로 이러한 현상은 교육을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되었다.

〈표 6〉은 여고생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심리적 특성인 성격에

〈표 6〉 심리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특성	신체만족도	하위부위				전체
		얼굴부위	상반신	하반신	전신	
내향-외향적 성격	내향적이다	2.73(B)	2.05	2.52	2.55	2.70
	보통이다	2.86(BA)	2.81	2.37	2.40	2.61
	외향적이다	3.00(A)	2.97	2.58	2.57	2.98
	F	2.61*	2.24	1.59	1.45	2.58
자기 존중감	낮다	2.49(C)	2.70(C)	2.10(C)	2.16(C)	2.36(C)
	보통이다	2.92(B)	2.89(B)	2.45(B)	2.48(B)	2.69(B)
	높다	3.14(A)	3.27(A)	2.74(A)	2.69(A)	2.91(A)
	F	25.85***	7.88***	13.79***	10.75***	20.84***

* P< .05, ** P< .01, ***P< .001

주) Alphabet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표 7〉 학교 생활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학교생활 특성		신체만족도 변인				전체
		얼굴부위	상반신	하반신	전신	
학 교 계 열	인문계	2.90	2.86	2.39(B)	2.45	2.65(B)
	실업계	2.84	2.89	2.45(BA)	2.43	2.66(B)
	예·체능계	3.00	2.99	2.65(A)	2.62	2.89(A)
	F	1.60	1.32	2.99*	1.72	2.53*
학 교 형 태	남녀공학 고등학교	2.88	2.90	2.51	2.50	2.70
	여자 고등학교	2.91	2.90	2.41	2.45	2.67
	F	.00	1.10	.04	.53	1.58
성 적	상위 0%-20%	3.04(A)	3.03(A)	2.62	2.64	2.83(A)
	상위 21%-40%	2.91(A)	2.95(B)	2.52	2.50	2.72(BA)
	상위 41%-60%	2.86(CB)	2.85(B)	2.40	2.40	2.63(BA)
	상위 61%-80%	2.79(CB)	2.78(B)	2.33	2.41	2.58(B)
	상위 81%-100%	2.67(C)	2.65(B)	2.53	2.52	2.79(B)
	F	2.67*	2.22*	1.84	1.52	2.80*
인기 도	없다	2.77(B)	2.66(B)	2.42(B)	2.76(BA)	2.55(B)
	보통이다	2.88(BA)	2.86(AB)	2.41(B)	2.41(B)	2.64(BA)
	있다	3.09(A)	3.06(A)	2.99(A)	2.84(A)	2.95(A)
	F	12.91***	8.30***	10.10***	9.06***	14.94***

* P< .05, ** P< .01,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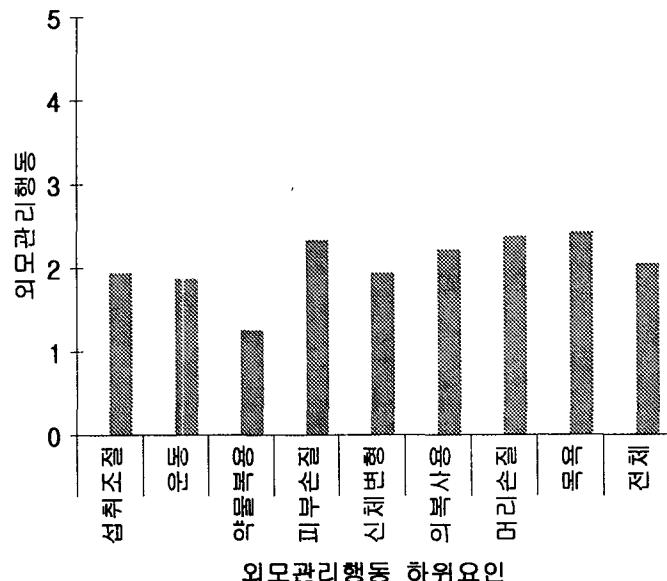
주) Alphabet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따라 신체만족도는 유의차가 있었다. 외향적인 여고생이 내향적인 여고생보다 얼굴 부위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여고생은 자기 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 각 부위별 만족도와 전체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다고 한 Stuart 등(1983)과 장효순(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되었다.

〈표 7〉은 여고생의 학교생활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학교생활 특성중 학교계열, 학교 성적과 학급내 인기도에 따라 신체만족도는 유의차가 있었다. 여고생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계열에 따라 신체만족도 하위부위중 하반신만족도와 전체 신체만족도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고생의 전체 신체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고생의 전체 신체만족도

가 가장 낮았다. 학교 성적이 좋고 인기도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 하위부위 중 얼굴만족도와 상반신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인기가 높은 여고생은 하반신만족도와 전신만족도도 높았다.

학교 형태에 따라 신체만족도는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차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만 다니는 고등학교의 여고생들이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고생들보다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했던 조성아(1991)의 연구 결과와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90년대 후반에 와서 거의 모든 중학교의 학교형태가 남녀공학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여고생들의 이성에 대한 감정이 낮아졌기 때문이리라 생각된다.



〈그림 2〉 여고생의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영역별 비교

3.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그림 2〉는 여고생의 외모관리행동의 8개 하위 영역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고생의 외모관리행동의 평균은 2.04로 낮은 편이었다. 여고생은 외모관리행동의 8개 하위영역중 목욕, 피부손질, 머리 손질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가정에 목욕실이 보급되어 여고생이 가정에서 목욕이나 샤워를 자주 하였고, 무스나 헤어 절과 같은 모발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약물 복용, 섭취 조절, 신체 교정 등 위험한 외모관리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었다. 본 조사에서 여고생이 섭취 조절을 적게 한다는 결과는 박병윤(1994), 박혜순(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거주지에 따른 차이로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대도시 거주자보다 외모에 관심을 적게 두어 외모관리를 위한 섭취조절을 적게 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여고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총월 수입이나 한달 용돈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의 유의차가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여고생은 외모관리행동 하위요인 중 목욕을 더 많이 하였고, 가정의 총월

수입이 많은 여고생은 신체 교정이나 목욕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용돈이 많은 여고생이 약물 복용, 피부 손질, 신체 교정, 의복 행동, 머리 손질, 목욕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고생의 인구통계적 특성 중 용돈은 외모관리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큰 특성이었다.

〈표 9〉는 신체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신장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유의차는 전혀 없었고, 체중에서는 섭취조절이나 운동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차가 있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여고생일수록 섭취조절이나 운동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체중이 신장보다 외모관리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체중이 신체만족도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쳤던 결과와 일치된 경향이었다. 체질량지수에 따라 정상 체중으로 분류된 여고생이 저체중으로 분류된 여고생보다 외모관리행동으로 섭취조절과 의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표 10〉는 내향 또는 외향적 성격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외향적인 여고생은 운동, 피부손질, 신체변화, 의복사용, 머리손질, 목욕 등 외모관리행동 전체영역에 걸쳐서 더 많이 하였다. 자기존중감이 낮은 여고생이 외모관리행동 요인 중 신체

〈표 8〉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		하 위 요인							전체	
		섭취조절	운동	약물 사용	피부 손질	신체 변화	의복 사용	머리 손질		
아버지 의학 력	대학교 이상졸업	1.91	1.94	1.31	2.38	2.00	2.20	2.38	2.49	2.13
	고등학교 졸업	1.96	1.84	1.22	2.33	1.92	2.25	2.42	2.45	2.12
	중졸 이하	1.90	1.86	1.19	2.23	1.87	2.13	2.13	2.23	2.02
	F	.39	.67	1.59	.61	.75	.73	.98	2.62	1.11
어머니 의 학 력	대학교이상졸업	1.94	2.07	1.34	2.38	2.00	2.31	2.39	2.55(A)	2.18
	고등학교 졸업	1.93	1.81	1.24	2.34	1.95	2.19	2.38	2.46(A)	2.10
	중졸 이하 졸업	1.93	1.87	1.21	2.26	1.87	2.20	2.34	2.32(B)	2.02
	F	.22	2.69	1.26	.43	.55	.74	.11	4.17**	1.01
가정의 총월수 입	100만원 미만	1.99	1.83	1.23	2.27	1.83(B)	2.14(B)	2.31	2.33(B)	2.05(B)
	100만원이상-200만 원미만	1.89	1.86	1.25	2.34	1.91(B)	2.24(BA)	2.34	2.34(B)	2.09(BA)
	200만원이상-300만 원미만	1.99	1.99	1.23	2.25	1.93(B)	2.12(B)	2.39	2.45(B)	2.09(BA)
	300만원 이상	1.87	1.78	1.29	2.49	2.18(A)	2.33(A)	2.52	2.69(A)	2.22(A)
한 달 용돈	F	.98	1.07	.28	1.16	2.65*	1.52	.81	3.64**	1.34
	3만원 미만	1.95	1.94	1.19(B)	2.15(C)	1.77(C)	2.16(B)	2.19(C)	2.31(B)	2.01(C)
	3만원이상 - 6만원미만	1.92	1.81	1.22(B)	2.34(CB)	1.97(CB)	2.14(B)	2.37(CB)	2.42(B)	2.09(CB)
	6만원이상- 9만원미만	1.94	1.71	1.35(BA)	2.66(BA)	2.23(BA)	2.46(BA)	2.70(BA)	2.56(B)	2.29(BA)
	9만원이상 - 12만원미만	1.94	1.93	1.55(A)	2.73(BA)	2.24(BA)	2.54(A)	2.93(A)	2.55(B)	2.39(A)
	12만원 이상	1.85	2.08	1.54(A)	2.83(A)	2.47(A)	2.38(BA)	2.90(A)	2.36(A)	2.47(A)
	F	.08	1.52	4.93**	7.44***	8.57***	4.24**	9.38***	8.97***	8.39***

* P< .05, ** P< .01, ***P< .001

주) Alphabet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표 9〉 신체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신체적 특성	하 위 요인							전체		
	섭취조절	운동	약물 사용	피부 손질	신체 변화	의복 사용	머리 손질			
신장	160cm 미만	1.87	1.81	1.20	2.32	1.94	2.25	2.30	2.37	2.08
	160cm이상-165cm 미만	2.04	1.93	1.28	2.31	1.94	2.19	2.39	2.40	2.11
	165cm 이상	1.87	1.97	1.25	2.37	1.95	2.19	2.43	2.50	2.12
	F	2.58	1.21	1.04	.18	.02	.42	.98	1.35	.24
체중	50kg 미만	1.75(B)	1.74(B)	1.21	2.36	2.03	2.24	2.40	2.44	2.09
	50kg이상-55kg 미만	1.99(B)	1.87(B)	1.27	2.34	1.92	2.24	2.41	2.42	2.12
	55kg 이상	2.14(A)	2.08(A)	1.27	2.27	1.84	2.13	2.29	2.40	2.10
	F	9.95***	7.97***	.64	.51	2.78	1.09	.82	.10	.14
체질량 지수	저체중	1.66(B)	1.66	1.24	2.35	2.01	2.17(B)	2.38	2.47	2.06
	정상	2.05(A)	1.97	1.25	2.33	1.91	2.24(A)	2.38	2.41	2.13
	F	12.88***	8.91	.42	.82	.92	2.31*	.78	1.97	2.01

* P< .05, ** P< .01, ***P< .001

주) Alphabet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표 10〉 심리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특성	외모관리행동	하 위 요인							전체
		섭취조절	운동	약물사용	피부손질	신체변화	의복사용	머리손질	
내향-외향적 성격	내향적이다	1.70	1.56(B)	1.42	2.22(B)	1.87(B)	2.00(B)	2.18(B)	2.28(B)
	보통이다	2.01	1.92(A)	1.21	2.28(BA)	1.90(BA)	2.17(BA)	2.32(BA)	2.39(BA)
	외향적이다	1.92	1.97(A)	1.33	2.54(A)	2.10(A)	2.36(A)	2.53(A)	2.60(A)
	F	1.22	2.12**	3.97	3.28*	2.41*	2.73*	2.25*	4.15**
자기 존중감	낮다	2.07	1.96	1.37	2.38	2.16(A)	2.18	2.35	2.31
	보통이다	1.95	1.86	1.23	2.30	1.90(B)	2.21	2.43	2.42
	높다	1.81	1.86	1.21	2.39	1.91(B)	2.24	2.21	2.52
	F	2.41	.52	2.53	.55	3.72*	.16	2.55	1.86

* P< .05. ** P< .01. ***P< .001

주) Alphabet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하여 압박붕대를 사용하거나, 안경 대신 렌즈를 끼고 눈썹을 정리하는 등 신체를 더 많이 사용하여 외모를 관리하였다.

〈표 11〉은 여고생의 학교생활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학교계열에서는 예·체능

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고생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고생보다 피부 손질, 의복 행동, 머리 손질, 목욕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그리고 학교 성적이 좋은 여고생이 약물 복용, 신체 교정, 머리 손질, 목욕과 같은 외모관

〈표 11〉 여고생의 학교생활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특성	외모관리행동	하 위 요인							전체
		섭취조절	운동	약물사용	피부손질	신체변화	의복사용	머리손질	
학교계 열	인문계	1.99	1.84	1.22	2.19(B)	1.88	2.14(B)	2.25(B)	2.35(B)
	실업계	1.91	1.89	1.28	2.49(A)	2.02	2.24(BA)	2.46(A)	2.42(B)
	예·체능계	1.81	1.94	1.25	2.45(A)	1.96	2.36(A)	2.58(A)	2.66(A)
	F	1.60	.49	.70	7.48**	1.66	3.42*	6.24**	5.40**
남녀공 학여부	남녀공학	1.93	1.88	1.27	2.26	1.97	2.15	2.39	2.49
	여자만 다님	1.94	1.87	1.23	2.38	1.91	2.26	2.36	2.37
	F	.01	.03	.80	2.46	.86	2.84	.20	3.26
									.08
성 적	상위 0%-20%	1.80	1.70	1.33(B)	2.42	2.09(B)	2.29	2.77(B)	2.67(B)
	상위 21%-40%	2.07	1.88	1.37(BA)	2.48	2.11(BA)	2.19	2.34(B)	2.46(B)
	상위 40%-60%	1.96	1.93	1.23(BA)	2.26	1.90(BA)	2.17	2.36(B)	2.35(BA)
	상위 60%-80%	1.90	1.89	1.17(BA)	2.38	1.93(A)	2.33	2.37(B)	2.46(BA)
	상위 80%-100%	1.83	1.80	1.23(A)	2.21	1.81(A)	2.15	2.28(A)	2.40(A)
	F	1.28	.82	2.10*	1.57	2.23*	1.32	1.99*	1.38*
인기도	인기없다	1.67(B)	1.76	1.19(B)	2.49	1.97	2.02(B)	2.37	2.63
	보통이다	1.96(A)	1.87	1.20(B)	2.29	1.91	2.21(BA)	2.34	2.40
	인기 있다	1.83(A)	1.97	1.30(A)	2.46	2.11	2.28(A)	2.57	2.67
	F	1.75*	.84	7.08***	1.35	1.55	1.29*	1.92	6.10

* P< .05. ** P< .01. ***P< .001

주) Alphabet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임

리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학급내 인기도가 높은 여고생은 음식을 적게 먹거나 식사를 거르는 섭취조절, 이뇨제나 설사제 같은 약물 복용, 체형 보정용 또는 기능성 의복 착용과 같은 의복 사용을 통하여 외모관리행동을 하고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가장 관심이 큰 여고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통계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학교생활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하여 청소년기 여고생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전주시의 인문계, 실업계, 예·체능계 고등학교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통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들의 신체만족도는 비교적 낮았다. 얼굴부위 만족도와 상반신 만족도가 다른 부위보다 높았으나, 하반신 만족도와 전신 만족도는 낮았다.

둘째, 여고생의 신체만족도는 부모의 학력이 높고 가정의 총월수입이나 한달용돈이 많을수록 높았다. 키가 크거나 체질량지수에 따라 저체중으로 분류되고,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자기존중감이 높은 여고생의 경우, 예·체능계나 실업계에 다니는 여고생의 경우, 학교 성적이 좋고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고생의 경우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여고생은 목욕, 피부손질, 머리 손질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였으나 약물 복용, 섭취 조절, 신체 변화와 같은 위험한 외모관리행동은 적게 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거나, 가정의 총월수입이나 한달 용돈이 많거나, 체질량지수에 의하여 저체중으로 분류되거나,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또는 자기존중감이 낮은 경우, 예·체능계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학교 성적이 좋거나,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고생의 경우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였다.

이상적 체형은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다르나 청소년층에서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이상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고생들은 특히 하반신과 전신만족도가 낮았다. 심지어 저체중인 여고생도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문제는 교육을 통하여 수정되어야

할 점이었다. 그러므로 신체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가 이상형에 가깝다고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다만 긍정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여고생의 외모관리행동은 목욕, 피부손질, 머리 손질과 같은 소극적 행동 수준이었다. 대중 매체에서는 섭취 조절과 같은 위험한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대중들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나 본 조사연구에서도 여고생이 외모관리를 위하여 많이 취하는 행동은 아니었다.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일부 여고생들 사이에서만 선별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장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 교문사
- 고애란(1983).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애란·김양진(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중심 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667-681.
- 고애란·심정은(1997).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의식과 신체태도 및 체중조절행동 연구. 연세 대 생활과학논문집, 11, 15-29.
- 구자명·이명희(1994). 남녀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 (5), 153-163.
- 김미숙·김경희(2000). 여고생의 Bodice체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7), 1004-1014.
- 김미영(1983). 연령과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불만감의 관련 변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미(1975).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13(3), 31-32.
- 김순구·박정순(1990).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아존중도 와 의복행동간의 관련성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16, 51-61.
- 김양진·장혜원(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 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11.
- 김인식(1981). 청소년 심리. 서울: 배영사, 164-165.
- 김재숙·이미숙·김은정·이혜원(1999). 신체이미지가 체중조절 및 외모관리행동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 충남대 충남생활과학 연구지. 12. 20-36.
- 문영보(1991).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영순(1979).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박병윤(1994). 청소년의 식생활과 건강관리. 오늘의 청소년. 88.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회, 10-16
- 박영남 외(1993). 고교생의 자아상에 관한 연구. 대구 YMCA 청소년 문제 연구소
-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구조에 대한 의식 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 박혜순(1996). 여대생 '몸매 콤플렉스' 심하다. 조선일보. 23507. 1996.10.9. 39
- 박효인(2000). Jung의 심리학적 유형과 사상체질 및 성격특성의 관계. 원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정은(1996).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 만족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정은·고애란(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 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연세대 생활과학논집. 11. 15-29
- 송경자(1999). 신체이미지·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진(1993). 청소년 심리학. 한국 청소년 개발원. 서울: 도서출판 서원
- 이경희(1991).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의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1982). "예의·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경(1993). 남성복 유형과 얼굴매력성이 직업특성 및 인상추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윤(1981).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 유형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주·임숙자(2001). 체중조절행동과 의복의 맞음성 만족도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1). 13-24
- 이인자·이경희·신효정(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 임숙자(1993).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효순(1985). 신체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예수 간호대 논문집. 3. 119-142.
- 정근백(1995). 인천시내 중·고등학생들의 다이어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가정의학회지 168. 254-260
- 정인석(1979). 현대 청년 발달 심리학. 서울: 재동문화사.
- 정재은·이순원(1993).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448-458.
- 조선진(1997). 일부 여대생의 비만수준 및 체중조절형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25-35.
- 조성아(1991).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인정(1993). 원아·학부모·원장이 선호하는 유치원 교사의 체형과 이상적인 외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loch, P. H. & Richins, M. L.(1992). You look "Marvelous": The pursuit of beauty and the marketing concept. Psychology and Marketing. 9. 3-15.
- Cash T. F., & T. Pruzinsky(1990). Body Images. Guilford Pub. Inc.
- Freedman, J. L. Sears, D. O., & Carlsmith, J. M(1983). 사회심리학(제 4판). 서울 : 박영사. (홍대식 역)
- Freedman, R. J.(1984). Reflections on beauty, as it relates to health in adolescent females. Health Care of the Female Adolescenty, 9(2/3). 29-45
- Goffman, H. (1965). Identity kits. in M. E. Roach & J. B. Eicher(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P.246). New York: John Wiley & Sons.
- Higgins, et. al(1991). Self-discrepancies and vernerability to body dissatisfaction and disordered ea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6). 946-956
- Horn, M. J(1975). The second skin.(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Ltd.
- Hurlock, E.B.(1976). Development psychology.

- New York: McGraw-Hill, 391-392.
- Kaiser, M. B.(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Pub. Co.
- Marier, H. W.(1965).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N.Y.: Harper & Row,
- McLean, F.P(1978).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 Mores, P. & R. Gergen(1970). Social comparison, self-consistency, and the concept of self,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6, 148-156.
- Richard, E. A. & Hawthorne, M. E.(1971). Values, body-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3), 190-194
- Rosenberg, M.(1966).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Rudd, N. A. & Lennon, S. J.(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8(3), 152-162.
- Ryan, M. S.(1966).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Schertzer, B. & Stone S. S.(1974). *Fundamentals of counseling*. Boston: Houghton Mifflin.
- Secord, T. F & Jourard, S. M.(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
- Sontag, M. S. & Slater, J. D.(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2).
- Stuart, S. & F. Sundeen.(1983).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St. Louis: Mosby.
- Tanner, J. M.(1962). *Growth at adolescence*. Blackwell, N.Y.: Scientific Pub.
- Tigard, M.V.(1975). The influence of body configuration and body cathexis on clothing fabric preferences of adolescent female.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 51-52